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3

OPEN ACCESS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데이터 분석 연구

- 인력 유형별 영향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School Library Status Survey Data: Focusing on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by Personnel Type

박 주 현(Juhyeon Park)*
홍 소 람(Soram Hong)**

〈 목 차 〉

Ⅰ. 서 론
Ⅱ.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체계
Ⅲ.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데이터 분석
Ⅳ. 논 의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 개편된 교육부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 간 성과 격차를 밝히는 데 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11,529개교를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추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는 학생 도서 대출수량과 1회 이상 대출자 수, 이용자교육 횟수・참여자 수, 독서동아리 운영률,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 지원인력 보유율에서 모든 집단 중 가장 우수하였고, 자료구입비・운영비의 최상위군을 형성하면서도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와 함께 최하위군을 형성하였다. 둘째,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거의 모든 절대 지표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는 이용자교육 시간・참여자 수와 독서동아리 운영률, 지원인력 보유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는 교육 성과가 큰 정규직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사서 자격증이 없는 사서교사 외 교사와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배치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사서교사, 사서, 담당교사, 독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ta of the School Library Status Surve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omprehensively reorganized in 2025, in order to identify performance gaps among the types of school library staff. A total of 11,529 schools operating school librar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 regular teacher librarians, fixed-term teacher librarians, librarians, teachers other than teacher librarians, and school library assistants — and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chools with regular teacher librarians ranked highest among all groups in the number of books borrowed by student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borrowed at least once, in the frequency of and participation in user education, in the rate of operating reading clubs, in the rate of securing external budget support, and in the rate of having support personnel; they formed the top tier in materials and operating budgets while forming, together with schools staffed by fixed-term teacher librarians, the bottom tier in personnel operating costs. Second, schools with teachers other than teacher librarians ranked lowest in almost all absolute indicators. Third, schools with school library assistants showed the lowest levels in user education time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rate of operating reading clubs, and in the rate of having support personnel.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place regular teacher librarians, who are associated with the strongest educational outcomes, and to rectify the placement of teachers other than teacher librarians and of school library assistants who hold no librarianship certification.

KEYWORDS : School Library Status Survey, Teacher Librarian, Librarian, Teacher in Charge, Reading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park51566@jnu.ac.kr / ISNI 0000 0004 6814 4449) (제1저자)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rhong@jj.ac.kr / ISNI 0000 0004 9178 285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6년 8월 14일 • 최초심사: 2026년 9월 4일 • 게재확정: 2026년 9월 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3), 185-205,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3.202609.185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과 관련되면서도 별도의 법령으로서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에 보다 구체적인 법리적 책무가 부과됨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의 설치 의무(제4조), 도서관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과 정보활용 교육(제6조 제1항), 전담인력의 배치(제12조)와 시설 및 자료의 최소조건 충족(제13조),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 지원(제15조) 등은 다른 관종과 달리 학교도서관이 갖추고 수행해야 할 고유한 조건들이다(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전수조사인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를 연간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는 물적 자원 및 이용률 등 기초통계적 차원의 현황 파악에 머물러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도서관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고,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결과 등이 기반이 된 성과환류를 위한 조사 모형과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4). 학교도서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현황 조사도구의 개발은 정책적 차원 뿐 아니라 유관조사의 개편과도 긴밀하게 관계된다. 2023년부터 2년 단위로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교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문항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고도화는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는 성과환류를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024년까지 진행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부터 조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도서관 인력의 유형과 고용형태, 자격증 보유 현황을 세분화하여 조사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학교도서관 성과의 핵심 변인으로 입증되어 온 인력자원과 학교도서관 운영 성과의 관계를 국가 단위 전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주로 학교도서관협회(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 사기업이나 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수조사와 조사의 정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의 내용적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성과환류를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2025년 개편되어 실시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체계를 살펴보고, 조사 데이터를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유형(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으로 구분한 단일 분석틀로 분석하여, 인력의 유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운영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정책의 방향 설정과 성과환류도구로서 현황조사의 유용성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개편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체계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유형에 따라 예산, 자료 이용, 교육지원, 관리·운영체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분석 결과가 학교도서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이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체계와 관련한 연구, 학교도서관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사서교사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체계와 관련한 연구이다. 변우열 외(2011)는 국내 학교도서관 평가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의 목적과 주체,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연과 이연희(2021)는 교육부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학교도서관 관련 조사, 컨설팅 및 평가를 메타평가 기법으로 분석하고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기관 간 평가의 중복, 국가단위 학교도서관 발전계획의 반영 미비, 공모형 평가로 인한 참여율 저조, 교육 평가지표의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평가 주체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할 것과 기관 간 평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는 미국학교도서관협회의 종단조사인 School Libraries Count!(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12), 영국과 호주에서 Softlink가 수행하는 학교도서관 조사(Softlink & School Library Association, 2023; Softlink Education, 2026), 영국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등이 수행하는 Great School Libraries 조사(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et al., n.d.), 호주교육연구협의회(ACER)가 수행한 남호주 학교도서관 센서스(Dix & Van Der Zant, 2025),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학교도서관조사(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발행년불명)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협회나 민간 주도의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또는 패널조사라는 점,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들 연구와 사례는 교육부 주도의 전수조사인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현황조사가 체계적으로 고도화될 경우 성과환류도구로서 갖게 될 비교우위를 시사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이다. 곽철완과 장윤금(2006)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사업의 효과를 학교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노영희와 권재현(2007)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장보성(2019)은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현황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소외 영역의 데이터 기반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강봉숙과 박주현(2019)은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전담인력 배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였다. 이들 연구는 현황·통계 데이터가 학교도서관 정책 평가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국 전수 단위의 행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 집단별로 운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사서교사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이다. 권은경(2006)은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미국의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권은경(2007)은 경상북도 학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사서교사 배치교와 일반교사 배치교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결정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박주현과 변우열(2018)은 전국 154개교의 초·중·고등학생 5,349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별로 사서교사와 사서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박주현과 허우정(2019)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498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별로 사서교사, 학교사서, 담당교사 근무교를 비교하여 학교도서관 근무인력의 유형이 교원들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인식과 정서, 이용 및 수업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국외에서는 사서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와 읽기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Lance & Kachel, 2018), 사서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독서 점수의 예측 변인이 된다는 연구(Thompson et al., 2021)와 성향점수 분석을 통해 사서교사가 초등학생의 읽기·수학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Wine et al., 2023)가 수행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서교사 배치의 긍정적 효과는 특정 지역이나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국외의 성취도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가 단위 전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별로 예산, 자료 이용, 교육지원, 관리·운영체계 전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기존 현황조사의 인력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서교사와 사서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거나 사서교사의 유무만을 다루어, 정규와 기간제라는 근무형태에 따른 사서교사 내부의 차이와 비전담 교사·보조인력 배치의 한계를 구분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2025년 개편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전수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표본 기반 실증을 국가 전수 수준으로 확장하는 의의를 지닌다.

Ⅱ.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체계

1.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개요와 개편 배경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전국 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24년까지의 조사는 조사 목적의 불명확성, 학교도서관 운영체계 관련 내용의 누락, 예외 사례나 현장 상황 반영의 어려움, 데이터 신뢰성 문제, 다른 조사와의 호환성・연계성 미비,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항의 설명력 부족과 이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는 기존 현황조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예컨대 정규직 사서교사와 기간제 사서교사에서 '기간제'라는 고용형태를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 독서동아리에 관련된 질의도 학교도서관에 한정된 것인지 교내 국어교육이나 독서교육 등과 결부된 것인지 등 문항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였다. 또한 통합학교 도서관에서 각 학교급별로 학교도서관을 각각 유지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없는 등의 현실과의 접점 부족, 데이터 형식 통제 불가능으로 4자리로 입력되어야 할 연도가 8자리로 입력되는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질의 문항의 개념적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적 개선과 설문 시행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적 개선이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방법적 개선을 위하여 독서로(DLS)와 학교정보공시 등 연계 데이터가 다른지를 확인하고 문항 조건에 부적합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입력체계의 확보, 연속형 입력값에 대한 아웃라이어 통제 방안 수립 등이 추진되었다.

2. 2025년 개편의 주요 내용

2025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개편에는 크게 인력 부분의 세분화, 장서의 다각화, 자료 이용현황의 구체화와 법령 및 매뉴얼 등의 제도적 사항의 현장 적용률 검토 문항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인력 부분의 세분화에서는 고용체계 정리와 및 자격증 개념이 도입되었다. 2024년에는 업무담당자를 정규직과 기간제, 교육공무직 등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질의하되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자격증 보유 유형은 교육공무직에 한해서만 질의하였던 반면, 2025년에는 학교도서관 인력을 지위형태(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기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근무형태(정규・기간제・공무원・교육공무직 등)를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모든 업무담당자가 보유 자격증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용형태와 이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단순한 인력 수와 정규직 여부, 고용의 지속성을 조사한 해외 사례를 보다 발전시킨 문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서의 다각화 측면에서는 장서 소장 현황을 중심으로 6개 항목을 한정적으로 조사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정기간행물을 국내와 국외로 세분화하고 전자자료를 전자저널, 전자도서, 오디오북, 웹DB, 기타로 세분하였으며 각각의 전자자료 유형을 소장형, 구독형 기관 수, 구독형 종수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자자료 현황 기입 시 발생하던 개념적 오류를 줄이고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입자료와 제적자료에도 소장자료와 동일한 매체구분을 적용하여 매체별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기증현황을 신설하여 자료 입수경로의 다양성을 반영하였다.

자료 이용현황 구체화 측면에서는 이용자, 매체, 대출자 개념의 세분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 전자책 등 대상 이용자와 매체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대출자 개념도 총 대출자인지 1회 이상 대출경험자인지 혼용되어 있던 항목을, 이용자(학생・교직원)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대출수량, 총 대출자 수(누적), 1회 이상 대출자 수(중복 제외)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을 7개 매체 기반으로 재편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매체별 이용현황을 세분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자 수와 대출경험자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사항의 현장 적용률 측면에서는 2025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에는 관리 및 운영체계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관리규정과 운영계획, 이용만족도 조사 등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과의 일치도를 대폭 삽입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제도적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3. 2025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개요

이상의 과정을 거쳐 2025년 개편된 문항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었다. 조사 기준일은 2025년 4월 1일이었으며 연속적 기간이 담보되어야 하는 문항의 기준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였다. 조사대상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이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학교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분교는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응답교는 전국 12,161개교이며, 이 중 통합학교도서관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는 1개교와 분교이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47개교 등 총 48개교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은 12,113개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Ⅲ.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데이터 분석

1. 분석 방법

이 연구는 2025년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에 응답한 12,113개교 중 학교도서관 운영교 11,941개교를 분석 모집단으로 하되, 인력이 복수 유형으로 배치되어 단일 유형의 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운 복수 배치교 158개교, 인력의 성격이 불분명한 기타 유형 배치교 253개교, 정규와 기간제 사서교사가 동시에 근무하여 집단 구분이 불가능한 1개교를 제외한 11,529개교(운영교의 96.5%)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교도서관 성과의 핵심 변인으로 입증된 전담인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권은경, 2007; 박주현, 변우열, 2018; Lance & Kachel, 2018; Wine et al., 2023)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사서교사 배치교는 근무형태 문항의 응답(정규교사・기간제교사)에 따라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1,666개교)와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1,561개교)로 구분하고, 여기에 사서 배치교(3,298개교),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4,828개교),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176개교)를 더한 5개 집단을 단일 분석틀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은 개편된 현황조사의 구조에 따라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예산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운영비, 인력운영비, 독서교육 예산과 예산 편성・외부지원 여부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료 이용 영역으로 학생의 도서(인쇄) 대출수량, 총 대출자 수(누적), 1회 이상 대출자 수(중복 제외)와 전자책 대출수량, 도서(인쇄) 보유량을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지원 영역으로 학생 이용자교육의 횟수・1회 평균시간・참여자 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횟수, 학교도서관에서의 수업 운영 횟수와 각 활동의 실시 여부를 분석하였다. 넷째, 관리・운영체계 영역으로 관리규정 보유, 운영계획 수립,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조직, 지원인력 보유의 이분형 문항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사서의 장서개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서관리 활동으로 장서 신규구입・기증 입수・제적(폐기)의 실시 여부와 구입 희망자료 조사, 구입예정목록 홈페이지 게시,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운영의 연속성 지표로 현 학교도서관 근무 시작연도에 기반한 근속연수(2025년－시작연도, 0~45년 범위 외 제외)를 분석하였다. 예산과 이용, 교육지원, 관리・운영체계 관련 지표는 모두 2025년 조사 기준값을 사용하였다.

연속형 변인은 집단의 규모가 상이하고 Levene 검정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었으므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Welch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Games-Howell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분형 변인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조정된 표준화 잔차를 산출하여 절댓값이 1.96을 초과하는 셀을 관찰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분석 집단의 특성

학교도서관 인력의 학교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가 4,828개교(41.9%)로 가장 많았고, 사서 배치교 3,298개교(28.6%),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 1,666개교(14.5%),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 1,561개교(13.5%),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 176개교(1.5%) 순이었다.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집단의 학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집단의 학교 특성

구분	학교 수(%)					평균 학생 수	중위 학생 수	평균 근속(년)
		초(%)	중(%)	고(%)	특수(%)			
정규직 사서교사	1,666 (14.5)	712(42.7)	409(24.5)	542(32.5)	3(0.2)	664.5	614.0	2.87
기간제 사서교사	1,561 (13.5)	691(44.3)	436(27.9)	427(27.4)	7(0.4)	574.0	545.0	2.16
사서	3,298 (28.6)	1,837(55.7)	1,004(30.4)	432(13.1)	25(0.8)	559.1	510.5	3.30
사서교사 외 교사	4,828 (41.9)	2,592(53.7)	1,257(26.0)	842(17.4)	137(2.8)	218.5	106.0	1.00
학교도서관 실무사	176 (1.5)	116(65.9)	20(11.4)	40(22.7)	0(0.0)	454.4	383.0	3.63
전체	11,529 (100.0)	5,948(51.6)	3,126(27.1)	2,283(19.8)	172(1.5)	432.1	379.0	2.85

주. 근속연수는 현 학교도서관 근무 시작연도 기준(2025년−시작연도)임.

〈표 1〉에서 주목할 점은 집단 간 학교 규모의 차이이다.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평균 학생수는 664.5명(중위수 614.0명)으로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컸던 반면($p<.001$),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218.5명(중위수 106.0명)에 불과하여 소규모 학교가 집중되어 있었다. 학교급별로도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는 1,666개교 중 고등학교가 542개교(32.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사서 배치교와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는 초등학교 비중(각 1,837개교(55.7%), 116개교(65.9%))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 간 학교 규모 및 학교급 구성의 차이는 학교 단위 총량 지표를 해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배경 조건이 된다. 특히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 중 사서 계열 자격(사서교사·사서·준사서)을 소지했다고 응답한 학교는 11개교(6.3%)에 그쳤고, 사서 계열 자격을 미소지한 165개교 중 45개교(25.6%)는 교사 등 자격증이 있으나 120개교(68.2%)는 자격이 없다고 응답하여, 실무사 배치교의 학교도서관 운영이 대부분 사서와 관련된 자격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 학교도서관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학교도서관 실무사 3.63년, 사서 3.30년, 정규직 사서교사 2.87년, 기간제 사서교사 2.16년인 데 비해 사서교사 외 교사는 1.00년에 불과하였다($p<.001$).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 정규직 사서교사는 기간제 사서교사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사서교사 외 교사는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이는 비전담 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업무가 사실상 1년 단위의 순환 보직으로 배정되어 업무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3.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예산의 차이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예산에 포함된 자료구입비는 학교도서관 예산에 포함된 비용으로 장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운영비는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의미한다. 인력운영비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지출에 필요한 예산이다. 독서교육 예산은 당해연도의 학교기본운영비 중 학교도서관 운영과 별도로 편성한 독서교육 관련 예산액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집단의 예산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예산 평균의 차이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a)	기간제 사서교사(b)	사서(c)	사서교사 외 교사(d)	학교도서관 실무사(e)	Welch F	Games-Howell
자료구입비	15,606	15,505	14,250	8,791	10,922	758.50***	a,b>c>e>d
운영비	5,981	5,902	4,969	2,569	3,472	649.15***	a,b>c>e>d
인력운영비	756	431	1,142	1,229	2,561	21.64***	c,d,e>a,b
독서교육 예산	5,868	6,043	5,412	4,053	6,286	22.82***	a,c,e>d

주. *** p<.001.
a=정규직 사서교사, b=기간제 사서교사, c=사서, d=사서교사 외 교사, e=학교도서관 실무사(이하 동일).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는 정규직 사서교사와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가 최상위군을 형성하였고(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사서, 학교도서관 실무사, 사서교사 외 교사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간에는 모든 집단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자료구입비(15,606천원)와 운영비(5,981천원)는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았고, 사서 배치교(각 14,250천원, 4,969천원)보다도 유의하게 많아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예산 확보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의 자료구입비(8,791천원)와 운영비(2,569천원)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절반 수준으로 모든 집단 중 가장 적었다.

학교도서관 인력운영비는 정규(756천원)와 기간제(431천원) 사서교사 배치교가 사서(1,142천원)·사서교사 외 교사(1,229천원)·학교도서관 실무사(2,561천원)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이는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며 비교과수업 등에서 추가적인 보조인력 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독서교육 예산은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가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4,053천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예산 관련 이분형 문항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예산 편성·외부지원의 차이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χ^2(df=4)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100.0 (+1.54)	100.0 (+1.48)	100.0 (+2.37)	99.7 (−4.41)	100.0 (+0.47)	19.45***
독서교육 예산 편성	72.4 (+2.65)	56.6 (−12.13)	62.4 (−10.77)	77.9 (+16.25)	71.6 (+0.55)	369.77***
예산 외부지원 확보	63.7 (+15.20)	38.2 (−7.08)	32.9 (−18.66)	53.0 (+11.81)	36.9 (−2.58)	577.24***

주. *** p<.001. 괄호 안은 '있음(예)'에 대한 조정된 표준화 잔차이며, 절댓값 1.96 초과 시 관찰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동일). N=11,529(문항별 유효응답 기준, 이하 동일).

학교기본운영경비 내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률은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99.7%)만 유의하게 낮았을 뿐 전 집단이 100%에 해당했다. 독서교육 예산의 학교기본운영경비 내 편성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77.9%, 잔차 +16.25)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72.4%, 잔차 +2.65)가 유의하게 높았고 기간제 사서교사(56.6%, 잔차 -12.13)와 사서(62.4%, 잔차 -10.77) 배치교는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예산의 외부지원 확보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뚜렷하였다. 외부지원을 확보한 학교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63.7%(잔차 +15.20)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았던 반면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는 38.2%(잔차 -7.08)에 그쳐, 같은 사서교사 직위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외부 자원 동원력에 큰 차이(25.5%p의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모사업 신청과 외부 기관 협력처럼 연차를 넘는 기획과 책임이 요구되는 활동이 근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예산 관리 권한을 함께 갖춘 정규 교사에게 유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사서교사 다음으로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의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 53.30%(잔차 +11.8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외 교사도 교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 집단에 소규모 학교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4.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자료 이용의 차이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현황에 포함된 학생 도서 대출수량(권)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학생이 대출한 총 권 수이며, 학생 총 대출자 수는 누적으로 계산된 대출한 학생 총 수이다. 그리고 학생

1회 이상 대출자 수는 당해 학년도에 특정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총 학생 수 중에서 당해 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대출한 학생 수를 의미한다.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자료 이용현황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자료 이용현황의 차이(평균)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a)	기간제 사서교사(b)	사서(c)	사서교사 외 교사(d)	학교도서관 실무사(e)	Welch F	Games-Howell
학생 도서(인쇄) 대출수량(권)	10,451.1	7,824.8	9,985.6	3,181.6	8,869.5	358.94***	a,c>b>d; e>d
학생 총 대출자 수(명)	6,322.4	5,128.2	6,288.7	1,873.6	5,381.6	463.59***	a,c>b>d; e>d
학생 1회 이상 대출자 수(명)	560.5	491.9	467.6	157.9	398.1	193.23***	a>c,e>d; b>d
학생 전자책 대출수량(권)	407.8	599.7	576.2	457.6	329.9	1.16	-
도서(인쇄) 보유량(권)	18,876.1	18,371.2	19,603.7	12,721.8	16,917.6	619.50***	c>a>e>d; c>b>d

주. *** p<.001. 전자책 대출수량은 응답교(집단별 15~274개교)에 한하여 분석함.

학생의 도서(인쇄) 대출수량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가 평균 10,451.1권으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았고,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7,824.8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사서 배치교(9,985.6권)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 총 대출자 수 역시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6,322.4명)가 가장 많았고 기간제 사서교사·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특히 중복을 제외한 1회 이상 대출자 수에서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560.5명)가 사서(467.6명), 사서교사 외 교사(157.9명), 학교도서관 실무사(398.1명)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실제로 책을 빌려 본 학생이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에서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세 지표 모두에서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어 최하위로 나타났다. 학생 전자책 대출수량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도서(인쇄) 보유량은 사서 배치교(19,603.7권)가 가장 많았고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18,876.1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12,721.8권)는 모든 집단 중 가장 적었다.

5.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교육의 차이

교육지원 현황에는 이용자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횟수, 도서관 수업 운영 횟수가 포함된다. 교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 운영 횟수는 단독과 협력수업을 포함한다. 사서와 학교도서관 실무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도서관 등에서

독서교육 등을 수업할 때, 수업 교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를 의미한다.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교육지원 현황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교육 및 지원 현황의 차이(평균)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Welch F	Games-Howell
이용자 교육	횟수(회)	12.0	10.6	5.8	2.9	4.1	110.61***	a,b〉c〉d,e
	1회 평균시간(분)	45.5	45.4	44.7	36.8	35.7	24.02***	a,b,c〉d,e
	참여자 수(명)	351.7	305.7	193.1	161.1	155.1	58.73***	a,b〉c,d,e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4.9	6.5	6.0	1.7	3.3	879.68***	b〉c〉a〉e〉d
도서관 수업 운영 횟수(회)		1.9	2.6	2.4	1.4	1.7	82.05***	b〉c〉a; b,c〉d,e

주. *** p〈.001.

〈표 5〉에 제시된 5개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학생 이용자교육에서 사서교사 배치교의 우위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용자교육 횟수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가 평균 12.0회로 가장 많아 사서 배치교(5.8회)의 약 2배,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2.9회)의 약 4배에 달하였으며,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10.6회)와 함께 사서·사서교사 외 교사·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1회 평균 교육시간은 정규직 사서교사(45.5분)·기간제 사서교사(45.4분)·사서(44.7분) 배치교가 사서교사 외 교사(36.8분)와 학교도서관 실무사(35.7분)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이용자교육 참여자 수도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351.7명)가 가장 많았고 정규·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가 나머지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비교과교사로서 사서교사에게 부여된 교육적 권한이 결합되어, 다른 인력 유형보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권은경(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는 이용자교육 1회 평균시간(35.7분)과 참여자 수(155.1명)가 모든 집단 중 가장 적어, 교육 기능에서 전문인력과의 격차가 가장 뚜렷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가 6.5회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았고, 사서(6.0회), 정규직 사서교사(4.9회), 학교도서관 실무사(3.3회), 사서교사 외 교사(1.7회) 순이었으며 모든 집단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수업 운영 횟수도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2.6회)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1.9회)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즉 프로그램·수업의 운영 횟수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보다 우위를 보였다.

교육 활동의 실시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교육 활동 실시율(%)과 조정된 표준화 잔차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χ^2(df=4)
이용자 교육	실시	91.2 (+9.03)	91.7 (+9.34)	88.6 (+9.24)	75.0 (−21.06)	80.1 (−1.26)	465.42***
	계획수립	94.5 (+4.11)	95.8 (+5.88)	95.0 (+7.38)	86.8 (−14.29)	90.8 (−0.49)	209.25***
프로그램 운영		97.9 (+9.09)	97.3 (+7.80)	97.3 (+12.46)	85.9 (−22.60)	86.9 (−2.80)	538.73***
도서관 수업 운영		84.8 (+4.35)	84.6 (+3.91)	89.4 (+14.56)	72.8 (−18.98)	79.0 (−0.67)	390.68***
독서동아리 운영		85.2 (+13.05)	70.6 (−1.21)	64.4 (−11.30)	73.6 (+3.43)	51.1 (−6.17)	282.46***

주. *** p<.001. 이용자교육 계획 수립은 해당 활동 실시교에 한하여 조사된 문항임.

이용자교육 실시율은 정규(91.2%)·기간제(91.7%) 사서교사와 사서(88.6%) 배치교가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75.0%, 잔차 -21.06)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용자교육 계획 수립률, 프로그램 운영률과 도서관 수업 운영률에서도 정규·기간제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교가 양(+)의 잔차를,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가 큰 음(−)의 잔차를 보이는 구조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독서동아리 운영률에서는 정규직 사서교사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85.2%(잔차 +13.05)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았던 반면,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는 70.6%(잔차 -1.21)으로 14.6%p의 격차를 보였다. 독서동아리의 조직과 지속적 운영은 학생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 격차는 신분 보장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학생 조직화 활동에서 갖는 효과로 해석된다.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의 독서동아리 운영률은 51.1%(잔차 -6.17)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아, 이용자교육에 이어 학생 대상 교육·조직화 활동 전반에서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6.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와 장서관리의 차이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체계에는 학교도서관 관리(운영)규정 보유 여부, 2025년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여부,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여부,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단독 조직 및 운영 여부, 학교도서관 지원 인력 보유 여부가 포함된다.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관리·운영체계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5개 이분형 지표 모두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장 뚜렷한 구조는 사서교사 외 교사의 효과가 낮다는 데 있다.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관리규정 보유(75.5%, 잔차 -23.16), 운영계획 수립(96.2%, 잔차 -10.50),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7.0%, 잔차 -11.25),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거나 미조직하지 않고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86.1%, 잔차 -20.33)하는 지표에서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1년 단위 순환 보직 구조에서는 규정과 계획, 위원회로 구성되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관리 · 운영체계의 차이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χ^2(df=4)
관리규정 보유	89.8 (+6.33)	96.3 (+13.81)	90.0 (+10.07)	75.5 (−23.16)	83.0 (−0.62)	583.62***
2025년 운영계획 수립 여부	99.3 (+4.52)	99.6 (+4.97)	99.0 (+5.22)	96.2 (−10.50)	93.8 (−3.79)	136.54***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9.8 (−1.48)	12.4 (+2.02)	16.1 (+11.38)	7.0 (−11.25)	15.3 (+1.91)	174.96***
운영위원회 단독조직	95.6 (+5.76)	97.3 (+8.21)	96.9 (+12.12)	86.1 (−20.33)	87.5 (−2.28)	436.72***
지원인력 보유	86.6 (+11.94)	84.0 (+8.98)	62.9(-18.84)	77.2 (+4.91)	43.8 (−9.60)	549.90***

주. 실시(보유)율(%), 조정된 표준화 잔차. *** p<.001.

지원인력 보유율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가 86.6%(잔차 +11.94)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았고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84.0%, 잔차 +8.98)가 뒤를 이었다. 앞서 〈표 2〉에서 정규 ·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의 인력운영비가 유의하게 가장 적었음에도 지원인력 보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사서교사가 별도의 보조인력 고용 비용 없이도 비교과교육 등을 통해 도서부 학생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학부모 동아리 ·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 · 운영하는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권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의 지원인력 보유율은 43.8%(잔차 -9.60)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아, 실무사 단독 배치교의 학교도서관이 인적 지원 없이 고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무사 배치교는 운영계획 수립률(93.8%, 잔차 -3.8)에서도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그리고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율은 사서 배치교(16.1%, 잔차 +11.38)가 가장 높아 이용자 서비스 관점의 운영 점검에서는 사서 배치교의 강점이 확인되었고, 관리규정 보유율은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96.3%, 잔차 +13.81)가 가장 높았다.

장서관리 활동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교도서관 인력 유형에 따른 장서관리 활동의 차이

구분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	χ^2(df=4)
신규구입	97.5 (+3.86)	98.8 (+6.45)	98.7 (+10.13)	92.0 (−16.55)	96.0 (+0.21)	281.12***
신규기증	17.0 (+3.74)	19.9 (+7.04)	22.4 (+16.18)	5.4 (−22.87)	19.3 (+2.01)	549.54***
제적(폐기)	66.5 (+4.16)	69.6 (+6.69)	74.3 (+17.30)	49.2 (−23.91)	68.8 (+1.88)	602.80***
구입 희망자료 조사	99.6 (+0.90)	99.5 (+0.75)	99.7 (+2.50)	99.1 (−3.00)	98.2 (−2.03)	15.03**
구입예정목록 홈페이지 게시	98.6 (+8.97)	97.5 (+6.90)	98.3 (+13.21)	87.2 (−22.21)	82.8 (−5.69)	559.21***
운영위원회 심의	99.8 (+2.68)	99.8 (+2.84)	99.6 (+3.23)	98.6 (−5.92)	96.4 (−4.09)	57.81***

주. 실시율(%)과 조정된 표준화 잔차. p<.01, * p<.001. 구입 관련 절차(희망자료 조사, 목록 게시, 심의)는 해당 활동 실시교에 한하여 조사된 문항임.

장서 신규구입, 기증 입수, 제적(폐기), 구입 희망자료 조사, 구입예정목록 홈페이지 게시, 운영

위원회 심의의 6개 지표 모두에서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특히 장서 제적 실시율(49.2%, 잔차 -23.91)과 기증 입수율(5.4%, 잔차 -22.87)은 다른 집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서의 갱신과 폐기, 입수경로의 다변화라는 장서개발의 기본 업무가 비전담 교사 배치교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정규・기간제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교는 전 지표에서 양의 잔차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서 배치교의 기증 입수율(22.4%, 잔차 +16.18)과 제적 실시율(74.3%, 잔차 +17.30)이 가장 높아 장서관리 실무에서 사서 직군의 강점이 확인되었다.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는 신규구입(96.0%)과 제적(68.8%)에서는 전문인력 배치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수집 절차의 공개와 심의에 해당하는 구입 희망자료 조사(98.2%, 잔차 -2.03), 구입예정목록 홈페이지 게시(82.8%, 잔차 -5.69), 운영위원회 심의(96.4%, 잔차 -4.09)에서는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즉,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는 장서를 구입하고 폐기하는 작업 자체는 수행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개・심의 과정이 생략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실무사가 사서 계열 자격 보유율이 6.3%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학교도서관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차적 전문성까지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한다.

Ⅳ. 논 의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정원 내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핵심 성과 전반에서 다른 어떤 인력 유형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우위와 연결되어 있음이 국가 단위 전수 데이터 규모에서 확인되었다.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는 학생 도서 대출수량(10,451권)과 1회 이상 대출자 수(560명), 이용자교육 횟수(12.0회)와 참여자 수(351.7명), 독서동아리 운영률(85.2%),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63.7%), 지원인력 보유율(86.6%)에서 모든 집단 중 가장 우수하였고, 자료구입비・운영비의 최상위군을 형성하면서도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와 함께 최하위군에 속하였다. 이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결정 요인임을 밝힌 권은경(2007)의 연구, 사서교사 근무교 학생들의 독서행태 우위를 확인한 박주현과 변우열(2018)의 연구, 그리고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 국내・외 연구들(권은경, 2006; Lance & Kachel, 2018; Thompson et al., 2021; Wine et al., 2023)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환류 효과가 '정규'라는 신분 조건과 긴밀하게 관계됨을 보여준다.

둘째, 기간제 사서교사는 정규 전환 시 즉시 활용 가능한 검증된 전문인력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 예산지원 확보율(기간제 38.2% 대 정규직 63.7%)과 독서동아리 운영률(기간제 70.6% 대 정규직 85.2%), 근속연수(기간제 2.16년 대 정규직 2.87년)에서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와의 격차가 뚜렷하였다는 점은, 연차를 넘는 기획·협력과 학생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요구되는 활동은 신분 보장 없이 확보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며,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이 정원 내 정규 배치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셋째,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4,828개교, 41.9%)의 전면적 열세는 비전담 교사에 대한 업무 부가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는 자료구입비·운영비, 학생 대출수량·총 대출자 수·1회 이상 대출자 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수업 등 거의 모든 절대 지표에서 최하위였고, 관리규정 보유·운영계획 수립·운영위원회 조직과 장서 신규구입·기증·제적·목록 게시·심의 등 관리·운영체계와 장서관리의 전 지표에서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평균 근속 1.00년의 순환 보직 구조에서는 업무 전문성도 운영의 연속성도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에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대출 등의 지표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전문인력 없이는 자원 투입이 이용 성과로 전환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도서관 실무사 단독 배치는 대출 중심의 서비스만 유지될 뿐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실무사 배치교의 학생 대출수량(8,869.5권)은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와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상근 전담인력의 존재만으로도 대출 중심의 기본 서비스는 일정 수준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용자교육 1회 평균시간(35.7분)과 참여자 수(155.1명)는 모든 집단 중 가장 적었고, 독서동아리 운영률(51.1%)과 지원인력 보유율(43.8%)은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운영계획 수립과 구입 희망자료 조사, 구입예정목록 게시,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실무사 배치교의 93.7%가 사서 계열 자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출·반납 등 창구 업무 중심의 직무 설계와 자격 기반의 부재가 교육 활동과 절차적 운영체계의 공백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교도서관에 '사람이 있는 것'과 '전문인력이 있는 것'의 차이가 교육 기능과 운영체계에서 갈리는 것이다.

다섯째, 사서 배치교의 성과 구조는 사서 자격 기반 전문성의 효과와 교사 지위 부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사서 배치교는 장서 기증 입수율(22.4%)과 제적 실시율(74.3%),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율(16.1%)에서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았고, 도서관 수업 운영률(89.4%)과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최상위권을 보였다. 반면 이용자교육 횟수(5.8회)는 정규·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의 절반 수준이었고,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32.9%)과 지원인력 보유율(62.9%)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학교급과 근무인력 유형에 따라 학생의 독서행태와 교원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인식·경험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박주현, 변우열, 2018; 박주현, 허우정, 2019)와 일관된 것으로, 사서 자격의 공통 효과(장서관리, 이용 활성화, 서비스 점검)와 교사 지위·신분 보장에 기반한 사서교사 고유

효과(이용자교육, 외부 자원 확보, 학생 조직화)가 구분됨을 의미한다. 이는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더불어, 이미 배치된 사서에게 교육 활동과 외부 자원 확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서교사 외 교사와 학교도서관 실무사를 배치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사서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단독으로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서교사나 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거나 사서 자격증이 없는 학교도서관 실무사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학교도서관 인력 이외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력을 법률에 근거한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25년 전면 개편되어 실시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체계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 운영교 11,941개교 중 11,529개교의 전수 데이터를 정규직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사서교사 외 교사,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학교도서관 인력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력 유형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성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1,666개교)는 학생 도서 대출수량과 1회 이상 대출자 수, 이용자교육 횟수・참여자 수, 독서동아리 운영률(85.2%),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63.7%), 지원인력 보유율(86.6%)에서 모든 집단 중 가장 우수하였고, 자료구입비・운영비의 최상위군을 형성하면서도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와 함께 최하위군에 속하였다. 둘째,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1,561개교)는 예산 확보와 이용자교육, 장서관리에서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와 대등한 최상위군을 형성하였고 외부 예산지원 확보와 독서동아리 운영, 근무 연속성에서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4,828개교)는 예산 편성 및 예비지원 확보(독서교육 예산 편성율 잔차 +16.25, 예산 외부지원 확보율 잔차 +11.81, 독서동아리 운영률 잔차 +3.43, 지원인력 보유 잔차 +4.91)를 제외한 모든 절대 지표에서 최하위거나, 최하위가 아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은 지표를 발생시키지 못했다. 특히 평균 근속 1.00년의 순환 보직 구조 아래 관리규정(-23.16)・운영계획(-10.50)・운영위원회(-20.33) 등의 관리체계 전반에서 유의한 음의 잔차를 보였다. 넷째,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176개교)는 93.8%가 사서 계열 자격이 없는 가운데 이용자교육 시간・참여자 수와 독서

동아리 운영률(51.1%), 지원인력 보유율(43.8%)이 최저 수준이었고 운영계획(-3.79)·목록 게시(-5.69)·운영위원회 심의(-4.09)에서 음의 잔차를 보였으나, 대출 중심의 이용 지표인 대출수량, 총 대출자 수, 1회 이상 대출자 수 등에서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도서(인쇄) 보유량 측면에서는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교(16,917.6권)가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18,876.1권)에 대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규직 사서교사 정원의 실질적 확대가 학교도서관 인력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현황조사의 사서교사 배치교 3,227개교 중 48.4%(1,561개교)가 정원 외로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교로 확인되어 배치된 사서교사의 절반가량이 기간제 사서교사에 의존하는 구조임이 드러났다. 이는 외부 예산지원 확보와 독서동아리 조직, 이용 저변의 확대 등 정규직 사서교사 고유의 효과는 정원 확대 없이는 확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간제 사서교사 인력의 정규 전환과 처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교와 대등한 성과를 보였고, 이미 검증된 전문인력이 신분 불안정 속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체의 41.9%에 이르는 사서교사 외 교사 배치교의 1년 단위 순환 보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비전담 교사에게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법정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이 전 지표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전담인력 배치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권역 단위 순회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단독 배치는 교육 기능과 운영체계의 공백을 수반하므로 전문인력 배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실무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사서 계열 자격 소지자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직자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자격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의 공식 지표 체계에 학교 규모의 영향을 통제한 지표를 포함하여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성과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현황과 이용현황의 매체구분을 일치시키며,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의 변동과 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단년도 횡단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도별 데이터가 축정되면 학교 규모와 학교급을 통제한 종단적 인과 분석과 개인단위 패널조사를 결합한 세부 분석으로 보다 다차원적인 학교도서관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봉숙, 박주현 (2019).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https://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곽철완, 장윤금 (2006).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대한 분석 -2003-05년도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143-160.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권은경 (2006). 미국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81-414.

권은경 (2007).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47-276. http://doi.org/10.16981/kliss.38.3.200709.247

노영희, 권재현 (2007).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측정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81-110.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081

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1.201803.123

박주현, 허우정 (2019).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581-610.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81

변우열, 이병기, 김성준 (2011).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51-73.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051

이지연, 이연희 (2021). 학교도서관 평가의 방향성 탐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2), 227-26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2.227

장보성 (2019).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313-331. http://doi.org/10.16981/kliss.50.1.201903.313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12). School Libraries Count!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School Library Programs.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School Library Association, & School Libraries Group (n.d.). Great School Libraries: Equal Futures? An Imbalance of Opportunities.

Dix, K. L. & Van Der Zant, T. (2025). School Libraries in South Australia: 2024 Census.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https://doi.org/10.37517/978-1-74286-777-9

Lance, K. C. & Kachel, D. E. (2018). Why school librarians matter: What years of research tell us. Phi Delta Kappan, 99(7), 15-20. https://doi.org/10.1177/0031721718767854

Softlink & School Library Association (2023). School Library Survey Report 2021/2022. Available: https://www.softlinkint.com/

Softlink Education (2026). 2025 School Library Survey Report Australia. Available: https://www.softlinkint.com/blog/2025-school-library-survey-report-australia/

Thompson, J., Barthlow, M., & Paynter, K. (2021). School librarians' teacher self-efficacy: A predictor of reading scores?. School Library Research, 24.

Wine, L. D., Pribesh, S., Kimmel, S. C., Dickinson, G., & Church, A. P. (2023). Impact of school librarians on elementary student achievement in reading and mathematics: A propensity score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5(3). https://doi.org/10.1016/j.lisr.2023.101252

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발행년불명). 「学校図書館調査」の結果. Available: https://www.j-sla.or.jp/material/research/gakutotyousa.html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yun, Woo-Yeoul, Lee, Byeong-Ki, & Kim, Sung-Jun (2011).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51-73. https://doi.org/10.4275/KSLIS.2011.45.1.051

Jang, Bo Seong (2019). Analysis on the operating status of special schools'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313-331. http://doi.org/10.16981/kliss.50.1.201903.313

Kang, Bong-suk & Park, Juhyeon (2019).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239-259. https://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Kwak, Chul-Wan & Chang, Yun-Keum (2006).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143-160.

Kwon, Eun-Kyung (2006). A study on the impact of school library programs on student achievement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381-414.

Kwon, Eun-Kyung (2007). The impact of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ism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247-276. http://doi.org/10.16981/kliss.38.3.200709.247

Lee, Jee Yeon & Lee, Yeon Hee (2021). Exploring the direction of school library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2), 227-261. https://doi.org/10.4275/KSLIS.2021.55.2.227

Ministry of Education (2024). The 4th Basic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2024~2028).

Noh, Young-Hee & Kwon, Jae-Hyun (2007). An evaluation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81-110.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081

Park, Juhyeon & Byun, Woo-Yeoul (2018). The effects of school library personnel on students' reading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1.201803.123

Park, Juhyeon & Hu, Woojung (2019). An analysis on the teachers' perception on school library services: Targeting the teachers in Incheon City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581-610.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81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ct No. 18547.